

월 780만원 차... 더 심해진 빈익빈 부익부

소득 최하위 20% 월평균 132만원·상위 20% 913만원 벌어 빈부격차 5.23배 10년래 최악...중산층 소득 1년만에 감소

통계청 2분기 가계소득조사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올해 명품 매출은 22일 현재 전년보다 11.8%나 늘었다. 경기 침체로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롯데백화점의 명품 매출 실적은 8.9% (2016년)→6.3%(2017년) 등 매년 늘어난 추세다.

광주신세계도 올해 명품 매출이 22일까지 9.9%가 증가하는 등 수요가 이어지면서 명품관을 확대하고 '몽클레르' 등 신규 브랜드를 추가로 입점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경기 침체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울어들어 증졌다. 광주 자영업자는 지난달 15만1000명. 전년도 같은 기간(15만6000명)에 견줘 3.3%(5000명)나 줄었다. 광주 자영업자 수는 올해를 제외하면 지난 2013년 2월

(15만1000명) 이래 가장 적다. 자영업자가 급감하면서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 14만9000명까지 추락했다. 1년 전(17만2000명)보다 무려 2만3000명(13.2%)이나 줄어든 수치다. 자영업자들의 수익 구조가 나빠지면서 비용 압박을 견디지 못해 줄폐업하는 등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에도,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반면, 부유층 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급증하는 등 '빈익빈 부익빈'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32만5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다.

2분기 기준으로 감소폭은 2003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다.

특히 근로소득(근로 대가로 받은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5.9%, 사업소득(자영 사업을 통한 소득)은 21.0% 급감했다.

이른바 중산층에 해당되는 3분위 가구 소득도 줄었다. 3분위 가구의 소득은 전년 대비 0.1% 줄면서 5분기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면, 소득 최상위계층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13만4900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줘 10.3%나 증가했다. 지난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는 게 통계청 발표다.

이어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의 명목소득도 544만4000원으로 1년 사이 4.9%나 늘었다.

빈부격차 역시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상위 20%의 월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5.23배로 2008년 2분기 이후 최악으로 악화됐다.

5분위 배율은 고소득층인 5분위의 평균 소득을 저소득층인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 수치가 클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분위 배율은 2분기 기준 2015년 4.19배를 저점으로 ▲2016년 4.51배 ▲2017년 4.73배로 상승한 뒤 올해 다시 5를 넘어가는 등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 저소득층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는 반면, 고소득층 소득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와관련,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소득분배 악화 원인을 "고령화, 업황부진 등에 따라 1분위 가구의 무직자가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1분위 가구의 취업 비중이 낮고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률 증가가 늘어나는 반면, 고소득층 취업자는 늘고 임금 상승폭이 확대된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전체 가계의 소득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2분기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명목·2인 이상)은 월평균 453만1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2% 늘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82.60 (+9.27)	금리(국고채 3년) 1.96 (0.00)
↑ 코스닥 791.28 (+5.33)	↑ 환율(USD) 1121.40 (+2.50)

보해양조, 13억 중국인 취향 저격

월마트 등 1224곳 앞세워·복합은 부러더 선보여

보해양조가 13억 중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까지 판매망을 확보, 현지 소비자들에게 다가간다는 전략이다.

보해양조는 23일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미국의 월마트와 손잡고 중국 상해지역에 앞세우고 복합은 부러더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보해양조는 최근 중국의 알리바바를 통해 온라인 판매망을 확보한 데 이어 월마트와 중국 오프라인 시장까지 뛰어든다는 13억 소비자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됐다.

보해양조는 중국 상해 화동·화남지역 월마트 104곳에 앞세우고 복합은 부러더 2종을 입점시키고 부러더 소다와 복합은 주, 매쉬순 등에 대한 추가 입점 논의도 진행 중이다. 보해양조는 9월부터 시작되는 중국 주류 성수기에 맞춰 매출 신장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해양조는 또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중국 오프라인 매장인 '하마선생'의 40개



매장에도 앞세우고 복합은 부러더 등 7가지의 입점,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하마선생은 지난 2016년 알리바바에서 투자를 유치하며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형태의 매장이다. 일반 마트처럼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주문을 받아 직접 발송하기도 한다. 매장에서 3km 이내 고객에게 30분 이내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해양조는 이외 일본계 편의점인 로손과 대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스타오' 매장 등 상해지역 편의점 1080곳에도 앞세우고 복합은 부러더를 입점, 판매중이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무역협 홍콩 식품박람회 참가...광주·전남 中企 판로 찾기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23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무역협회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한 6개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홍콩 국제식품박람회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전시회와 바이어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전시회가 동시에 열리는 종합 마케팅 대전이다.

전남지역 6개 업체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76만 홍콩달러 상당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한편, 현장 수출상담회에서 44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33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안수산은 즉석매생이 시식행사를 통해 소비자 발길을 붙잡았고 다담매출영농조합은 1만 8000달러 상당의 매실원액 판매 성과를 올렸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홍콩에서 열린 식품박람회에 참가한 지역 중소기업들의 시장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사세 확장 '에어필립' 신입 60명 채용

10월까지 2·3호기 도입...40% 지역 인재 우선

(주)에어필립(회장 엄일석)은 항공기 추가 도입에 따라 신규직원 채용에 나섰다 23일 밝혔다.

에어필립은 브라질 암브라에르 회사의 ERJ-145 기종을 1호기로 도입해 현재 '광주-김포'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오는 9월과 10월 2호기와 3호기를 도입하는 것에 이어 오는 2020년까지 항공기를 12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운항·객실·정비본부

분야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지난 22일 최종면접을 진행했다. 신입직원과 경력직원 등 총 6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채용인력의 40% 상당을 지역 출신 인재들로 선발할 계획이다.

에어필립 관계자는 "사람중심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직원 채용을 꾸준히 확대하고 근무환경 향상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

현대중, 삼호중 분할합병...지주사 전환

현대중공업이 현대삼호중공업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투자회사를 현대중공업에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2일 기업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 및 배당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중공업지주→현대중공업(자회사)→현

대삼호중공업(손자회사)→현대미포조선(중손회사)'으로 이어지는 형태인데 분할·합병을 거치면 현대중공업 아래에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나란히 자회사로 들어가는 형태로 바뀐다.

분할·합병 이후에는 현대중공업이 주요 조선 자회사인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

중공업을 자회사로 직접 지배하며 그룹 내 조선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조선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과 사업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4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현대차 '제네시스' 한번 타보세요

내달 6일~연말까지 2700명 선정 2주간 시승 기회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2018 제네시스' 신차품질조사 종합 1위 달성을 기념해 '제네시스 익스피리언스' 시승 이벤트를 연다.

제네시스는 다음 달 6일부터 연말까지 2700여명을 선정, G70과 G80을 2주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장기 시승 기회를 제공한다.

회사 측은 G70 100대와 G80 300대 등 400대의 시승 차량을 확보한 뒤 고객에 직접 차를 가져다주고 찾아오는 '픽업 앤드 딜리버리' 서비스를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24일부터 제네시스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희망 차종, 시기, 지역 등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앙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